

2025년 7월 6일(일) 정기

이 보도자료는 2025년 7월 6일 오전 7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담당부서 : 국제협력과 국제도시협력2팀

유 형 : 접견

사진유무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과장	이동규	051-888-7750
팀장	손평모	051-888-7743
담당자	김지현	051-888-7744

### 박형준 시장,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 접견.. 부산에 베트남 총영사관 들어선다

- ◆ 7.4. 10:00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 시장과 도안 프엉 란(Doan Phuong Lan)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만나, 총영사관 개설과 부산-베트남 우호 협력 강화 논의
- ◆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양 도시 간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을 강조
- ◆ 박 시장, “총영사관이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동 번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라고 전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도안 프엉 란(Doan Phuong Lan)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가 만나, 부산과 베트남 간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도안 프엉 란(Doan Phuong Lan) 신임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는 최근 부산에 도착해 부산 내 총영사관 개설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접견은 총영사 취임 인사와 함께 부산과 베트남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박 시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현재 베트남은 우리나라 3대 교역 대상국이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교역국”이라며, 주부산 총영사 임명을 축하하고 총영사관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했다.
- 이어 “부산시는 특히 1995년 호찌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거뒀고 올해는 자매결연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라며, “부산시는 2008년 호찌민시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해 지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무원 초청 연수와 한글학교 지원 사업 등 인적·문화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 또한, 박 시장은 “총영사관 개설은 베트남 정부가 부산에 보내는 신뢰의 상징으로, 부산시도 이에 부응해 협력해 나가겠다” 라며, “이번 총영사관 개설은 양 도시 간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고 재부 베트남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에는 약 1만 4천 명의 베트남 교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적별 외국인 거주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 이에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는 “부산에서 초대 총영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며, 부산을 비롯한 관할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 라고 화답했다.
- 아울러, “총영사관이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된 후에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이 양국의 경제·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공동 번영을 위해 총영사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라며 이날 접견을 마무리했다.

참고

접견 사진

